

# 시험 운영 기준 세우고 요약노트 잘 활용하라

## ■ 내일 수능...고3 교사가 말하는 수험생 대응 요령

### 쉬는 시간 잠담하지 말고 조용히 다음 과목 집중을

### 시험 끝난후엔 반드시 가채점...정시지원 전략짜야

13일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다. 고등학교 3년간 흘린 땀과 눈물 에 대한 결실을 거둘 시기가 됐다. 한 번의 시험으로 대학 입시가 결정된다는 것이 합 리적이지는 않지만, 현 입시체제에서 수 능은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그만큼 고3 수험생에게는 부담 스럽고 힘든 싸움이다.

그러면 마지막 결전에 임하는 고3 수험 생으로서 수능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먼저, 수능을 보는 수험생 입장에서 가 장 중요한 것은 수능 시험 운영에 대한 기 준을 세우는 것이다. 지금까지 모의고사 를 통해서 여러차례 수능시험 연습을 해 왔지만, 실제 수능시험은 모의고사와 비 교할 수 없을 만큼 긴장되고 다양한 변수 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어 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수능에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예를 들어,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될 때 어 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면 문제 해결과 관계없이 다음 문제로 넘어갈 것인가에 대 한 기준이나, 쉬운 문제부터 해결한 후 어 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등의 기준을 세 워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 다.

두 번째로 수능 당일 무리해서 많은 책 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 수능일 아침 시 험장에 가서 아이들을 격려하다 보면 가방 에 많은 책을 담아서 가지고 가는 수험생 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수능 당일 가지고 간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 쉬는 시간이 20분 이지만, 답안지 수거 시간이나 화장실 다 녀오는 시간을 제외하면 고작 10여분 정 도 주어질 뿐이다. 이 시간동안 가장 핵심

적이고 중요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데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과목별로 중요한 개념과 내용을 정리한 요약 노트를 가지고 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세 번째로 쉬는 시간 친구들과 답담을 하기보다는 조용하게 다음 시간에 보는 과 목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간혹 앞 시간에 보았던 과목의 정답을 맞춰보거나 시험 내 용에 대해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경 우가 있는데, 이를 경우 정확하지 않은 정 보로 인해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불안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쉬는 시간 친구들과 과 앞 시간 시험 과목에 대한 내용으로 대 화를 나누는 것은 시험을 망치는 지름길이 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능 시험이 끝나면 인터넷 에 공개된 정답을 보고 정확한 가채점을 해보아야 한다. 가채점 결과로 수시전형에 지원한 대학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며, 수시전형 에 지원한 대학을 정시에도 지원할 수 있 는지에 대한 사항을 살펴본 후 대학별 시 험에 응시할지에 대한 여부도 결정을 해야 한다. 만약 수시전형에 실패했다면 정시전 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시전형을 준비해

야 하며, 지원 가능 대학에 대한 정보를 미리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수능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대학입시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수시전형을 합격 한 학생에게는 수능시험이 대학입시의 종 착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수시전형에 합 격하지 못한 학생에게 수능시험은 정시를 위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수능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 한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 며,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 다고 해서 인생에 실패하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인생이라는 긴 흐름 속에서 수능 시험은 한번 거쳐야 하는 단계이지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빌게 이츠가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라 고 말했듯이 수능 또한 수험생들의 인생 을 결정할 만큼 공평한 시험은 결코 아닐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동안 고 생한 자신에게 '고생하고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라는 위로의 말 한마디를 꼭 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광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위원·송덕고 교사>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4    ~~몰림~~ 22:14  
해질 17:29    ~~몰림~~ 11:26

### "수험생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낮부터 점차 그치겠다. 예상 강우량 5mm 미만.

#### ◇지역별 날씨 (℃)

광주	비온뒤	8/13	보성	비온뒤	8/14
목포	비온뒤	11/13	순천	비	8/15
여수	비온뒤	11/14	영광	비	9/13
나주	비온뒤	6/13	진도	비	10/13
완도	비온뒤	10/14	전주	비온뒤	8/12
구례	비온뒤	5/14	군산	비온뒤	8/12
강진	비온뒤	9/14	남원	비온뒤	5/12
해남	비온뒤	9/14	옥산도	비	12/14
장성	비온뒤	6/12			

#### ◇바다 날씨

서해	남부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앞바다	서~북서	0.5~2.0	북서~북	2.0~3.0	
면바다	서~북서	1.5~3.0	북서~북	2.0~4.0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1.5	서~북서	1.0~2.0
서부	면바다	서~북서	1.0~3.0	서~북서	2.0~4.0

#### ◇물때

목포	밀물		썰물	
	10:21	05:09	23:08	17:53
여수	12:21	05:45	00:00	18:24

#### ◇주간 날씨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	☀	☀	☀	☁	☀	☀
2/7	4/13	5/15	5/13	8/12	6/15	5/16



#### ◇생활지수

식중독	35
운동	60
빨래	60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광주시 북구청·북부경찰서 직원들이 11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모야미래도 아파트 앞길에 주차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늦었다 싶으면 112·119 찾으세요”

### 수능일 경찰·소방본부 긴급수송 작전 나서

“수능일인 13일 늦었다 싶으면 112 또 는 119를 찾으세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3일 수험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경찰과 소방 본부가 112, 119를 통해 긴급수송 작전에 나선다. 관공서와 기업체·금융기관 등은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춘다.

11일 광주시와 전남도, 경찰청 등에 따 르면 수능당일 입실시간에 임박한 수험생 이 112로 신고하면 순찰차가 출동해 시험 장까지 이송해 준다. 소방본부는 장애인·입원환자·거동이 불편한 수험생이 사정

예약을 하면 시험장까지 데려다 주는 '119 이송서비스'를 운영한다.

경찰청은 시험장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시험장 반경 2 km이내 간선도로를 집중 관리한다. 시험장 200m 앞에서는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듣기시험 시간대인 오후 1시10분부터 40분까지 30분간은 광주공항 민항기 이·착륙이 금지되고 군 전투기는 이날 훈련이 중지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반' 내년 230곳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국 76개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 중인 시간제 보육반을 내년 까지 23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차전경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맞벌이 가구 등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시 간제 보육반을 연말까지 99곳, 내년에는 23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간제

보육 사업이 더욱 활성화돼 맞춤형 보육 서비스제도도 발전시킬 기대한다”고 말했 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종일제 보육 서비 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기관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시간제로 보 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시간당 4000원의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연향뉴스

## 허리띠 졸라매는 광주·전남 교육청

### 운영비·근무수당 등 줄여 교통분담...내년 사업도 대폭 축소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도 교육청이 내년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맸다. 광주교육청은 본 청과 직속기관 운영비를 15%, 학교 운영비를 5% 일괄 감액했다. 전남도교육 청도 초·중·고교 근무수당을 줄이는 등 교직원 들이 고통을 감내하기로 했다.

11일 광주시교육청이 발표한 2015년 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보다 132억원 늘어난 1조6922억원을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내수경기 둔화에 따른 세 수 감소로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223 억원 감소했지만 지방교육채를 796억원 발행해 전년 대비 132억원 증가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전년 대비 950억원 증가한 1조4314억원 반영돼 전체 예산의 84.6%를 차지했다.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 소 요액 670억원 가운데 어린이집(2개월 분)에 120억원, 유치원(10개월분)에 550 억원을 편성했다.

인건비 증가와 누리과정 등 무상 복지 증가로 인해 다른 교육사업 예산과 실적 사업비는 크게 줄었다.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비는 올해 246 억원에서 145억원으로 무려 100억원 깎 였고, 학교재배치와 학교 신증설 사업비

도 올해보다 55억원 줄었다. 학교교육력 제고중점학교 운영비 13억원, 방과후 학교사업지정비 7억4000만원, 초·중·고교실 운영비 7억9000만원, 특성학교 운영비를 3억원, 체육교육내실화 12억원 등 거의 모든 사업비가 전년보다 감액 됐다.

전남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보다 495억원 늘어난 3조534억원을 편 성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내리 오는 보통교부금이 전년보다 1719억원 줄었지만 지방채를 2739억원 발행해 전 년 대비 495억원 증가했다.

세출예산은 교직원 인건비·학교운영 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전년 대비 1094억원 늘어난 2조162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0.8%를 차지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초·중·고교 근무수 당 1인당 초과분을 월 1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 여 80억원을 감축했고, 기간제 교사 인 건비도 소요 인원의 80%만 반영해 100 억원을 줄였다. 또 3·4학년으로 확대 예 정이었던 초·중·고교실 운영비를 반영 하지 않아 106억원을, 기존 사업 69개를 폐지하고 77개를 통합해 107억원을 올 해보다 줄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당뇨환자를 위한 매출 3% 기부금

**전남대학교병원**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5억원 가입

**H 현대해상화재보험**

당뇨병 환자도 부담없이 드실수 있는

# 천연설탕 토디팜 재거리

순수함을 간직한 청정지역 미안마의 자연선물

자연산 100%

**런칭 기념 2+1**

- 시럽 프리미엄 28,000원
- 시럽 일반 22,000원
- 가루 38,000원
- 고체 36,000원

(무료배송)

각종류별도/시럽/가루/고체    •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 광주은행 040-121-698715 네이처코미

**약으로 쓰이는 아자수액을 끓여 만든 오리지날 천연설탕 미안마 재거리**

1. 낮은 당 수치로 당뇨병 및 고혈압 예방
2. 신경계와 심장에 좋음 / 피를 맑게 함
3. 낮은 열량 / 다이어트 효과
4. 기력회복 / 정력에 도움
5. 소화불량 / 변비에방
6. 폴리페놀 성분 / 아카시아 벌꿀의 20배 / 플라보노이드 성분 7배 / 비타민C,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

단맛을 내는 "모든음식"에 사용하세요

식약청 검역필 41762-14-002447U

간강 100세를 기원하는 천연식품기업

**네이처코미**

주문상담 **1899-8752**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1 금양빌딩 603호 네이처코미